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 치료·재활·체육교실 등 다채… 수강생 모집

남구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2012년 새해 들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한글교실과 태권도 교실, 웰빙요가교실 등 39개의 강좌를 개

설하고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개설된 프로그램에는 1박2일 동안 캠프활동을 하

며 서로의 정을 쌓을 수 있는 형제캠프,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제과제빵과 요리 등을 배우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주말학교 등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심리·언어·물리치

료도 함께 운영된다. ☎626-6990~1 대연5동 나시합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도 발달장애 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음악·언어·감각통합치료는 매주 월~금

요일마다 열리며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바우처)은 만4~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금요일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도 사진 동아리 활동과 연주단,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연중 펼쳐진다.

☎627-8521

구분	프로그램명	내 용	대 상	인원	이용료	기 간
남구장애인복지관 (남구 대연3동 567-16번지) ☎626-6990~1	한글교실	한글교육	등록 장애인	12명	무료	화요일, 목요일 13:30~15:00
	영어교실	생활영어 교육	등록 장애인	10명	무료	월요일, 수요일 13:30~15:00
	정보화교실	기초교육 및 정보 활용 능력 개발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6명	무료	화요일, 목요일 13:40~15:00
	이·미용서비스	무료 미용서비스	등록 장애인	80명	무료	매월 둘째주 화요일 09:30~11:30
	자기관리주강	지적장애인의 의사표현 훈련	지적장애인	10명	무료	8월 중
	사회복지실습	이론교육 및 실습활동 (프로그램 보조 등)	사회복지 전공 실습 희망자	12명	50,000원	1월, 8월
	도시대여	도시대여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	무료	수시
	성간이비과내 성간이비과내	체형 및 강의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일반 유체력, 초·중학교 재학생	1회 30명	무료	주1회 (사전예약)
	캠프캠프	1박2일 캠프활동으로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월제)	20명	20,000원	7월 (1박2일)
	장애인식개선 한마당	장애인복지관 연합 캠페인	부산지역 주민	1,200명	무료	4월
	태권도교실	태권도 기초 교육 및 체육활동	지적장애인	35명	무료	월요일 10:00~12:00
	몸통 만들기	헬스관장의 운동재방	등록장애인	15명	무료	월요일, 수요일 13:30~15:00
	평동탁구교실	탁구연습 및 교육	등록장애인	10명	무료	화요일 10:00~11:30
	배드민턴교실	배드민턴교실습 및 교육	등록장애인	10명	무료	화요일 14:30~16:00 목요일 13:30~15:00
	웰빙요가교실	요가교육	등록장애인	10명	무료	월요일 13:00~46:00 금요일 11:00~12:00
	살아나는 노래교실	노래방 자유이용 및 전문가 감상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지역주민	40명	무료	12:30~15:00 (자유이용) 12:30~14:00/강습 14:00~15:00
	영화관람	영화상영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지역주민	30명	무료	매월 넷째주 금요일 13:00~15:00
	체력단련실	여러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운동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25명	무료	수시 09:00~18:00

### ■ 정보안테나

#### 초등학교 대상 특강

부산여성회관은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를 위한 단기 필레이특강을 3월부터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동안 열리는 특강 프로그램은 성장체조마사지, 예쁜글씨 POP, 어린이미술, 풍선아트, 어린이성교육, 클레이아트 등이다.

참가 신청은 내달 20일부터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oman.busan.go.kr, ☎610-2012

####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부산남부지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민원24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 교육

남부소방서 용당119안전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및 상설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연중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있다.

참가 중·고생들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621-1195

#### 최저임금 시간당 4,590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영세사업장의 고용질서 확립과 공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와 퇴직금 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90원이며 그동안 최저임금의 80%이상 지급토록 되어 있던 감시·단속측 근로자 임금도 올월부터 90%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와 이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으로 신고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생활 중에 느낀 불편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별도의 본인인증과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먼저 통신사별 앱스토어 또는 생활공간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기존 모바일 생활불편 신고서비스는 중단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유시터정보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888-2251

## 남구선관위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 행정사무보조 전산업무 등 2명, 내달3일까지 접수해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보조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남구 2명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자격은 선거행정사무보조의 경우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2년 이상 행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원 등이며 전산업무를 담당할 보조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업계 2년 이상 실

무경사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접수는 1월30일~2월3일까지 닷새간이며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선거위 관리계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원은 2월13일~5월11일까지 3개월간 선거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보수는 월 53,160원이다. 4대보험도 가입된다. ☎633-7656

## 저비용 고품격 예식장을 찾으십니까?

### 남구청 1층 대강당웨딩홀을 이용하세요



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사 대강당웨딩홀이 저비용 고품격 예식장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 까지 모두 306건의 예식이 치러져 남구

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토·일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중 예식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14만원(예식료 10의 새로운 만원 + 주차료 4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사용 가능

웨딩홀은

본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석 규모에 아늑한 패백실과 신부대기실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265면의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조용한 가운데 여유롭게 예식을 치를 수 있다.

이용자격을 부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결혼당사자나 혼주가 업무 시간 중 어느 때나 구청 5층 재무

료로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 신청하면 전액환불을, 1일전에는 50% 환불된다.

하지만 간단한 예식문화 정착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폭죽, 비눗방울, 드라이아이스, 케이크절단 등 연출행위는 할 수 없다. ☎607-4166

## 생활안정자금 최고 2천만원 융자

###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지원… 연리 2% 2년거치 2년상환 조건

남구는 올해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에 나서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안내하고 있다.

융자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 생산가구 등이 해당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주민 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연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다.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임주보증금 일부도 지원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이 2천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리 2%, 2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구로 추천하고 구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동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은 농협중앙회 대안동지점을 찾아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607-4314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받아

남구는 노인인가구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참여자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받고 있다.

모두 1,196명을 모집하는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와 남구보건소, 남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남구지회 등 8개 기관에서 사업

을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해 수행기관을 찾으면 된다.

선발된 노인들은 실버환경지킴이와 금연절주홍보단, 들꽃해설단,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실버택배 등의 사업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수행한다. ☎607-4365

### ■ 부산남구신문 창간 16주년 기념 명예기자 좌담회

## 생생한 주민들의 삶 담아내는 구보로 거듭나자

부산남구신문 창간 16주년을 맞아 명예기자들이 모여 구보의 발전방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부산남구신문이 사랑받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기사작성과 정보제공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편집자주>

**사회자** : 지난 1일로 부산남구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았다. 오랫동안 명예기자로 활동하신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옥련 회장** : 먼저 구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위해 탄생한 구보가 창간 16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동료 명예기자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또한 십 수 년간을 구보와 동고동락한 우리를 자신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흡한 글 솜씨지만 알차고 유익한 남구신문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영란 기자** : 초창기 멤버로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회장님 이하 모든 기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구정홍보의 첨병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부산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기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화합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많이 작성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회자** : 부산남구신문의 역할과 나아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상영 기자** : 구보는 구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구정을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투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류진아 기자** :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기자들 대부분이 시인, 수필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들인데 이를 심분 활용해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기사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때 구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미 기자** :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면에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 오락도 해녀들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싱싱한 생게알 만큼이나 기사가 잘 났다는 독자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주민들의 소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최정순 기자** : 주민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신속히 보도해야 합니다. 물론 월간이라는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지면에 허락되는 대로 알차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강화할 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독자인 주민들이 자기계발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통해 복지사의 꿈과 간호사의 꿈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사회자** : 구정과 주민의 간극을 좁히고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구보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듯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선자 기자** : 저의 글을 읽고 답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 놀랐습니다. 기사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구보의 지면에 가슴 따뜻한 미담과 함께 밝은 소식을

많이 할애해 광활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화 기자** : 개인적인 발전도 있었던 기자생활입니다. 더욱 노력해 구정홍보의 첨병으로서 기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구정주민이 서로 피드백(소통)할 수 있는 기사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두래 기자** : 교정과 교열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잘 쓴 기사라고 해도 오타자로 인해 거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태금 기자** : 그 말에 공감하고요.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도 지속적으로 실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비종교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학교폭력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오늘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리·김옥련



김옥련 기자

“구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에 충실해야”



주영란 기자

“주민과 호흡하는 기관지로 성장하길”



한정미 기자

“이웃들의 감동적인 삶 기사에 담아야”



최정순 기자

“알차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더욱 강화”



김정화 기자

“구정 홍보 첨병 사명감 기사로 녹이자”



이두래 기자

“교정 교열에 더욱 신경써서 신뢰 얻자”



조상영 기자

“한발 빠른 지역 소식 전달자로 인식돼야”



류진아 기자

“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윤선자 기자

“가슴 따뜻한 미담 많이 실었으면”



여태금 기자

“청소년들 관련 소식 적극 담아내자”